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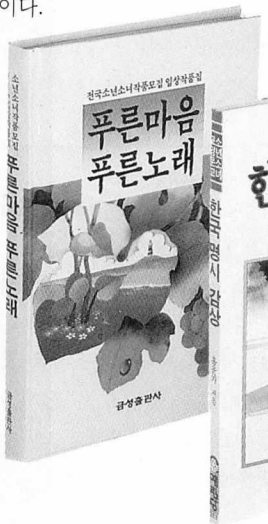
푸른 마음 푸른 노래

편집부 엮음

금성출판사/A5신/288면/3000원

글쓰기의 생활화를 위해 지난 3월 실시한 「전국 소년소녀 작품모집」(금성출판사 및 금성교과서 주최)에 응모했던 3만5천여 작품 중에서, 350여명의 수상자를 가리고 우수작 122편을 다시 추려내 수록한 수상작품집.

국민학교부 최우수작「약속」(권기현), 중학교부 최우수작「헌책의 아름다움」(안은영), 중학교부 운문 우수작「나팔꽃」(박은선), 국민학교부 운문 가작「구름동물원」(이소영) 등 어린이들의 깨끗하고 맑은 심성이 깃든 글들을 읽고, 작품평도 덧붙였다. 어린이들은 글짓기훈련의 길잡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어른들은 동심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다.



6학년 3반 청개구리들

최승환 지음

현암사/A5신/244면/2300원

「5학년 3반 청개구리들」을 발표해 많은 인기를 끌며 모았던 작가 최승환씨의 최신 명랑소설. 같은 국민학교에 다니면서도 한번도 같은 반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삼총사친구 보라, 만희, 영동은 6학년에 올라가서야 드디어 꿈에도 소원하던 한반이 되었다. 무섭기로 소문난 독고신방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되었지만, 삼총사들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그러나 6학년 3반 청개구리들이 펼치는 기상천외한 사건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편을 나누어 야구시합을 벌이던 끝에 세 친구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선생님은 쌍권총잡이

헤이젤 타운슨 지음 / 이종한 옮김

상서각/A5신/158면/1500원

레니와 제이크는 결코 우등생은 아니지만, 둘 다 대단한 상상력과 섬세한 관찰력 그리고 날카로운 육감을 지니고 있다. 수업 중에 피병을 부려 빠져나와 놀고 있던 레니와 제이크는 교실 안을 훑쳐보다가 깜짝 놀란다. 험상궂게 생긴 작업복차림의 두 사나이가 선생님과 친구들을 권총으로 위협하며 인질로 삼고 있지 않은가! 그 순간 레니와 제이크는, 총알을 맞으면 예방주사보다 백배는 아프겠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을 내버려두고 혼자만 살 수는 없다고 결심한다. 평소 마술숨씨를 닮아오던 레니는 자신의 마술도구를 이용하여 기막힌 속임수를 꾸며내고, 제이크의 기지에 힘입어 인질범들을 잡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든다.



푸른 들녘

백시역 지음

대교출판/A5신/190면/2500원

가난과 전쟁으로 험벗었던 1950년대, 한국의 농촌을 푸르게 만든 세계적인 육종학자 우장춘박사의 삶과 업적을 그린 전기. 조선말 개화파의 한 사람이었던 우범선과 일본여인 사카이 사이에서 태어난 우장춘은 여섯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려운 집안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여 육종학자로서 많은 성과를 올리게 된다. 해방이 되자 말도 통하지 않는 조국으로 돌아와 배추, 무, 감자, 굴의 종자를 개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알곡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벼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우장춘의 외로운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그렸다. 선구자 시리즈 두번째.



한국명시감상

홍윤기 엮음

예림당/A5신/134면/2000원

한 노래의 자지러진 가락에서 풀리어 물이 듣는 완곡한 대목에 이르듯 가을바다는 있고나.

머리 위 은행잎들은 반짝이는 노릇만으로 시방 햇볕 쪽에 편되고 가을바다 쪽으로도 편들어 꿈결 옆을 스치는데

내 속병 또한 은행잎 쪽으로도 쏠리어 흔들여 소리하는 법 하나 배우고 있네. 「가을바다」

한국의 명시 100여편을 수록하고, 해설과 낱말풀이를 곁들여 이해를 도왔다.

레이온 아이따 형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지음 / 이정애 옮김

진아사/A5신/220면/2500원

낭기알라, 그 곳은 아직도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꿈같은 세계가 펼쳐지는 신비의 나라다. 인간의 육체는 죽어도 그 영혼은 소생하여 낭기알라로 간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오던 스코르판에게 형 요나탄은 황홀하고도 신비로운 나라 낭기알라에 관해 이야기해준다. 겁장이 스코르판은 형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자기 혼자 외로이 지낼까 걱정하지만, 어느날 집에 불이나 동생을 구해내기 위해 불속에 뛰어든 요나탄이 먼저 낭기알라로 떠나는 슬픈 사건이 일어난다. 얼마 후 형의 뒤를 따라 낭기알라에 온 스코르판이 꿈에도 그리던 형과 재회하여 신나는 모험세계에 뛰어든다는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내용의 동화다.

달맞이꽃

최도규 지음

아동문예사/A5신/114면/2000원

잎마다 노랗게 물들어보고 바람이 불어와도 걱정없어요

봄에는 꽃 피우고 가을엔 단풍들여 할일 다하고 떠나갑니다.

봄에는 열매맺고 가을엔 씨 영글여 할일 다하고 떠나갑니다.

「낙엽」

여러 권의 동시집과 시조문집들을 발표한 바 있는 저자의 신작 동요집.

천국으로 가는 열차

오병학 지음

백함출판사/B6변형/244면/2500원

공자가 제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제자 중의 한사람인 칠조개는 공자가 알선해준 벼슬자리를 검손하게 사양한다. 나를 다스릴 줄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남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는 칠조개의 대답에, 자공은 그의 용기없음과 모자람을 비웃지만 공자는 아무리 훌륭한 구슬같은 사람이더라도 세상이 어지러워 알아 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한사코 나아가 벼슬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공자와 칠조개의 이야기를 들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등, 성경의 각 구절을 재미있는 동화, 전설과 함께 엮은 성구문화 동화집.

이태선 동시(1·2·3)

이태선 지음

백학출판사/A5/각권110면내외/1500원

뒷뜰안 양지에 잔디를 파고
고추나무 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날마다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물주며 가꾸기가 재미가 나요.

귀뚜라미 노래하는 가을입니다.
파랑던 고추가 빨개졌어요

...
키들이 자라나고 마음도 자라
사랑도 자라나고 생각도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 돌려요.

「우리도 자라야」

어린이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엮은 동시집.

여러분은 어떻게 살것입니까

요시노 겐자부로 지음 / 이진아 편역

나라사랑/A5신/220면/2800원

부제 「김종철군의 작은 세계」.
이야기의 주인공 종철이의 별명은
코페르니다. 어떻게 해서 코페르니라는
별명을 갖게 됐으며, 그에게 보낸 삼촌의 긴
편지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호기심 많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한
소년이 주위의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에
눈떠가는 모습을 그린 이 책은,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신선한 감동과
함께 열어 보인다. 일본의 진보적
언론인이었던 요시노 겐자부로의 작품을
우리 생활에 맞게 고쳤으며, 지혜롭고
가치있는 삶이란 어떠한지
자연스럽게 생각해볼게끔 안내했다.

메리 포핀스

P.L. 트래버스 지음 / 박광순 옮김

범우사/A5/256면/2500원

우산을 타고 바람에 실려 온 메리 포핀스가
제인과 마이클이 살고 있는 벳나무거리
17번지에 갑자기 나타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양탄자
가방과 앙무새 머리모양의 자루가 달린
우산을 지닌 메리 포핀스의 주변에는 언제나
재미있고 신기로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불가사의한 메리 포핀스와 순수한
동심을 지닌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갓가지 기묘하고 감쪽한 이야기들이
환상적으로 펼쳐지는 현대적인 공상소설.
1964년 영화화돼 대단한 호평을 받았던
작품으로, 「범우 피닉스문고」 여섯번째권.

나의 영원한 친구 꼬마 주리고

김주현 지음

두봉/A5신/252면/2500원

다람쥐가족의 막둥이이며 매우 호기심이
많은 삐꼬는 어느날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커다란 구멍 속으로 빠지게 된다.
잠시 후 정신을 되찾은 삐꼬 앞에는 시커멓고
털투성이의 괴물무리가 나타난다. 이들
뚜가비족은 삐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는데, 다람쥐 삐꼬의 소원은 사람이란
이상한 종족과 사귀어 보는 것. 우두머리
뚜가비 프라노프가 요술몽둥이를 삐꼬의
머리에 올려놓고 「호라이호 마하미호
사이마호 꾸루루루롱」이란 주문을 크게
외자, 갑작 삐꼬는 몸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하고 물에 뜨는 듯 동실거림을 느끼게
된다. 소년으로 변해버린 삐꼬 앞에 이상스런
모험세계가 펼쳐진다.



문 없는 까치집

박경중 지음

화술/A5신/120면/1800원

시린 바람이
머물 자리를 찾아 해매고 있다.

미류나무 가지에 걸린
까치집에선
부엌 아궁이가 없어서 불을 못때

...
고개를 넘어가던
등근 해님이
따스 손으로 어루만져 주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
시린 바람을 물고
고개를 넘어간다. 「문 없는 까치집」

아름답고 따뜻한 자연적 서정의 노래
50여편을 수록한 동시집.

꽃을 먹는 토끼

김녹촌 지음

창작과비평사/A5신/230면/2200원

비단처럼 곱게 다듬어진
가을들판.

롤롤롤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찬 황금 벌판.

고마운 분에게
인사라도 드리는 듯
무겁게 고개 숙인 노란 벼들.
... 「가을들판」 중에서

건강하고 힘찬 아동문학작품을 쓰기 위해
작가가 바닷가와 산촌을 다니며 써 모은
80여편의 동시들을 수록했다. 동시의 세계에
몰두한지 20년만에 내놓은 작가의 첫번째
시선집이다.

안뎀국민학교의 종이비행기사건

박명희 외 지음

지경사/A5신/250면/2500원

‘종이비행기를 날리면 안뎀’ ‘꽃밭에 가면
안뎀’ ‘나무에 올라가면 안뎀’ 용이와 순애가
다니는 학교 게시판에는 온통 안뎀다는
알림글 뿐이다. 오월 햇빛이 따사로운 어느
날 늦은 오후, 알림글이 있는데도
종이비행기를 날린 학생을 붙잡기 위해
교장선생님은 사층 두 번째 교실로 뛰어
올라간다. 목발을 짚은 재호가 휘휘 날고
싶은 자신의 꿈을 종이비행기에 실어 보낸
것을 알아낸 교장선생님이 다음날 아침
‘종이비행기를 날려도 좋음’이란 알림글을
내붙인다는 「안뎀국민학교의
종이비행기사건」(신난희) 외에 「오월
하늘처럼」(박명희) 「광대의 눈물」(박상규)
「땅꼬마 장이」(윤수천) 등 33편의 동화를
수록했다.

개구장이 천재

주디 부름 지음 / 윤미기 옮김

동국출판사/A5/222면/2500원

어느날 엄마와 아빠가 만아들 피터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린다. 두번째 동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피터에게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네살짜리 동생 무쓰가
너무나도 개구장이기 때문이다.

임신한 엄마에게 무쓰가 “엄마 아기가
어떻게 해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지?”라고
질문하자, 엄마는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라는 책을 빌려다 읽어주고, 무쓰는
이어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아무한테나
말하고 다니며 소동을 일으킨다. 동생이
태어나자 무쓰는 엄마 아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갓가지 일들을 벌이고 다니는데...
엉뚱한 생각과 행동으로 어른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개구장이 천재 무쓰와 그
가족이 엮는 재미있는 이야기.